

“제주기점 항공편 좌석 확대를”

도, 국토부에 좌석 품귀 현상 등 대책 마련 촉구
해외노선 증편으로 제주기점 항공편 줄며 좌석난
국토부 “하계스케줄 적용된 후 문제점 해소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주항공노선 공급 좌석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해외노선 항공편 증편으로 제주기점 항공편 수가 감소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주노선 공급좌석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희현 제주도 정부부지사는 이날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만나 “제주의 항공교통은 대중교통 수단이자 제주경제의 중심 인프라임을 감안해 제주항공노선 공급좌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최근 제주기점 항공편수 감소로 국내선 좌석 품귀 현상이 가중되면서 봄맞이 개별관광객,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항

공좌석난이 이어지고 치솟는 항공요금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제주도민 항공좌석 확보의 어려움과 항공요금 대폭 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노선 항공기 좌석난 해소를 위해 항공편수 확대 또는 특별기 투입, 중소형 기종을 대형으로 대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국어 인천공항 입국일원화 해제에 따라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재개 등 코로나19 이전 국제 정기항로(5개국 27개 노선)운항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의 예

로점과 요청사항을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내달 26일부터 항공 하계스케줄이 적용된 이후 문제점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항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국내선 공급좌석 확대와 항공운임 안정화, 국제항공노선 정상화 방안 등과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에 증편하면서 국내선 운항 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간 국내선 항공편은 2900편 넘게 줄었다.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운항 편수 감소는 항공권 예약난과 좌석난, 항공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며 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윤기자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실현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 24일 출범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에는 도내 기관·단체 등 소속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상 모든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운동을 이끌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에서부터 자원순환사회 실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범도민추진위’ 출범
200여명 참여… 각 분야에서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이하 2040 PZJ)’ 실현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 24일 출범했다.

도내 기관·단체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범도민추진위는 일상 모든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2040PZJ는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0년 대비 50% 감축하고 도내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64.5%에서 2040년 92%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는 도내 곳곳에 탈플라스틱 분위기를 확산시켜 재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기관·단체는 자발적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 1회 추진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이행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기준 도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8만5687t으로 이중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 4만6426t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도내 1인당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연 69.4kg으로 전국 평균 55.3kg보다 1.25배 많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제주에서부터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위기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유일한 해법은 환경의 복원”이라며 “제주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제주의 자연은 도민 공동

자산인 동시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의 유산”이라며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을 향한 제주의 노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통해 폐기물의 환경영향을 제로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발생량을 완전히 감축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 기반도 새롭게 마련해 나가겠다”며 “제주가 그리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농축산물 수출업체·농가 수출물류비 지원

도, 총 15억여원 … 내달 2일부터 상시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수출 증진을 위해 3월 2일부터 연말까지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제주도는 올해 15억 9000만 원을 수출물류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과거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제주산 품목별, 국가군별로 수출물량(kg)당 산정된 표준 물류비의 1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출 선적분은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농축산가공식품은 제주산 농축산물이 주원료로 50% 이상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외업체가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개별 수출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수시 입력하고, 제출서류 및 수출내역 증빙자료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농축산 관련 업체와 농가들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2023 대한 영성문화 대축제
The True Face of Korean Spiritual Culture

지금은 병란 개벽기, 나와 가족의 질병을 물리치는

무병장수 선려화 치유수행

말씀·전수 안경전 종도사

2023. 3. 4.(토) 오후 3시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홀
STB 상생방송 (KCTV374, KT241, LG277, SKY185)

모시는 글

지금은 병란 개벽기, 나와 가족의 질병을 물리치는

무병장수 선려화 치유수행

현재 지구촌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는 와중에 건강회복과 무병장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증산도에서 도문에 전승되어온 ‘무병장수 선려화仙侶花 치유 수행법’을 공개 합니다.

『선려화仙侶花』는 삼신조화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빛의 꽃’으로 인간의 질병치유 및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충전시켜 건강회복과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오시어 ‘광명한 빛의 꽃, 우주 조화의 신선꽃’인 선려화仙侶花를 전수 받으시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극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화선 문명 명상포럼 제주지부 드림

STB 상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됩니다.
문의. 010-3927-7748, 010-6634-9330